

News & Issue

뉴스와 쟁점

라티노 유권자의 정치적 영향력: 2016년 대선 결과를 중심으로

장예림

미국 사회에서 증가하는 라티노의 존재감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그럼에도 라티노 선출직 공무원과 유권자의 증가세, 지난 2012 대선에서 오바마에게 보여준 압도적인 지지로 인해 이번 대선에서도 라티노는 미디어의 조명을 한껏 받았다. 트럼프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인종차별적이고 반이민적 정서를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내며 수많은 라티노를 분노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대거 투표장으로 향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이에 더해 라티노 인구 증가에 따른 유권자 수의 증가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선호하는 라티노의 성향과 맞물려 힐러리 후보 당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이 압도적이었다.

그러나 미국 대선의 특징인 선거인 제도와 승자독식제라는 고유한 방식으로 인해, 다수의 언론기관에서 내놓은 예측과는 상반되게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었다. 힐러리가 6547만 여 표를 득표함으로써 전체 득표수에서 앞섰지만,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와 플로리다를 트럼프에게 내주면서, 선거인단 수에서 밀려 패배하였다. 이번 대선에서 결과적으로 가장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유권자 계층은 예상과는 달리 라티노 유권자가 아니라 백인 중산층, 즉 서민 유권자였다.

이번 대선의 사전 조사결과에서 예측한대로 대다수 라티노 유권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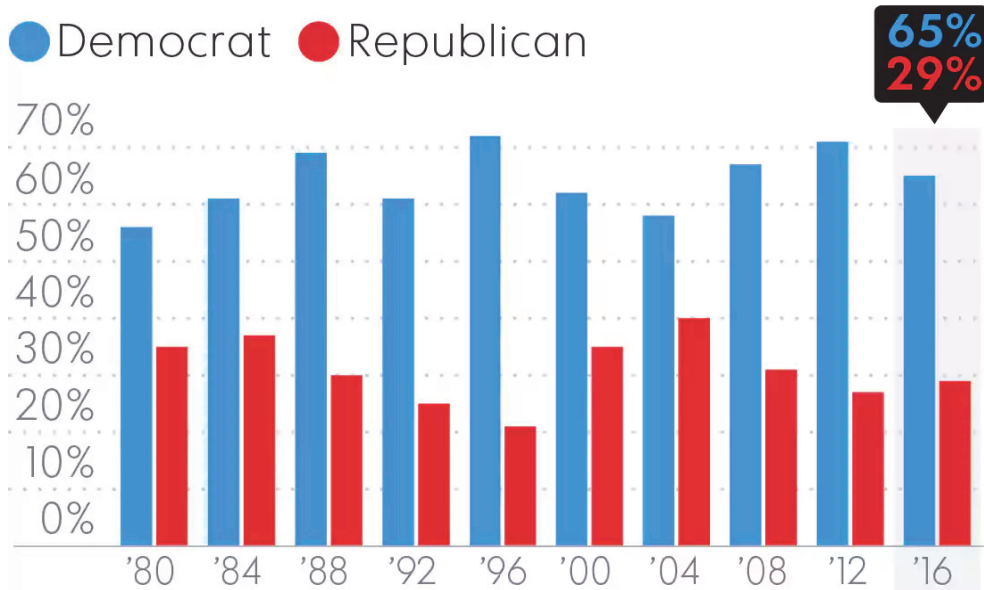


트럼프를 지지하는 라티노 유권자(출처: <http://thehill.com>)

힐러리를 지지했다. 그러나 이는 2012년에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했던 71%의 비율보다는 5%포인트 낮은 66%였다. 트럼프는 28%의 라티노 득표를 얻으면서 2012년 공화당 대선 후보였던 롬니보다 많았지만 2008년의 맥케인보다는 3%포인트 적게 득표했다. 2016년 대선에서 전체 투표자는 135,126,933명으로 2012년의 129,085,403표에 비해 증가하고 투표율도 57.5%로 소폭 상승했다. 라티노 유권자의 비율은 2008년, 9%에서 2012년, 10%, 2016년, 11%로 조금씩 상승세를 기록했다. 라티노 유권자의 비율이 커지면서 선거 결과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은 일정부분 적중했다.

그렇지만 라티노 유권자는 이번 대선에서 유의미한 변화를 유발하거나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여러 원인을 꼽을 수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라티노 인구가 여전히 몇몇 주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선거에서 비경합주로 분류되는 캘리포니아, 뉴욕, 텍사스에 전체 라티노 인구의 55% 가량이 거주한다는 것이 선거 결과에 제한적 영향력밖에 행사하지 못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2014년 대선 분석 결과, 대선 격전지로 분류되는 13개 주 중, 라티노 유권자가 10% 이상 비율을 차지하는 주는 단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격전지 주에서는 라티노 유권자가 전체 주 유권자의 5% 미만이었는데, 이는



1980년-2016년까지 히스패닉의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선후보 지지율(출처: <http://www.usatoday.com>)

라티노가 대선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지표다. 즉, 라티노 유권자가 현재 격전지인 주에서 선거결과를 결정적으로 좌지우지할 가능성이 적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격전지 주 중에서 라티노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곳은 플로리다 주였다. 러스트벨트라고 부르는 미국 북부와 중서부 지역에서 약세를 보인 힐러리는 29명의 선거인단을 보유한 플로리다에서도 1.2%포인트 차로 패배하면서 당선과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플로리다의 라티노 유권자는 전체 유권자의 18%를 차지했는데, 이는 2012년 대선 때에 비해 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여러 언론이나 연구기관에서 대선 전에 예상했듯이, 이번 선거에서도 라티노 유권자의 투표율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편으로 나왔다. 아직 정확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는 않지만, 48%의 투표율을 기록했던 2012년 대선 때와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한 수치를 기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2 대선에서 백인이 64%를, 흑인이 68%를 기록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이다. 전체 유권자 중 라티노 비율이 1% 가량 증가한 것은 단지 인구 증가에 비례한 자연적인 증가로, 이번에도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라티노 유권자의 고질적인 문제가 그대로 재연되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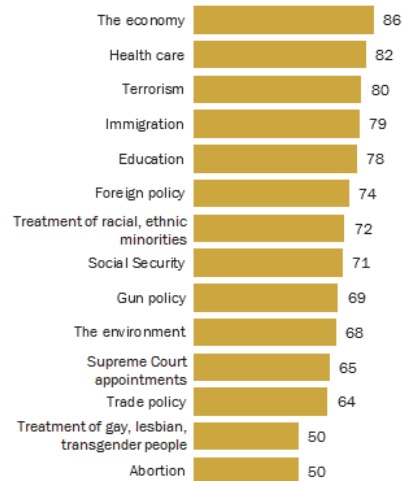
다른 인종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라티노 투표율은 라티노 유권자의 44%가 밀레니엄 세대라는 사실과도 연관이 있다. 어떤 인종 집단을 막론하고 젊은 층의 투표 참여율은 다른 연령대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을 보인다. 또한 투표 일정과 상충되는 개인 일정, 후보자에 대한 거부, 선거나 정치 일반에 대한 무관심이 유권자 등록 포기로 이어진다. 그 외에도 스페인어로 된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투표소가 적은 것도 라티노 유권자 집단이 표를 행사하는 데 장애로 작용하기도 한다. 스페인어만 사용하는 인구 비율이 꽤 높은 라티노에게 영어로만 된 안내문과 투표용지를 제공한다는 것은 정치적 의사결정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라티노 투표에 대한 분석이 어긋난 것은 라티노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한 데서 기인한다. 라티노의 60%가 멕시코계이지만, 푸에르토리코, 쿠바 등 여타 카리브 해 국가를 비롯하여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등 중앙아메리카에서도 이주가 늘어나면서 라티노 인구 구성이 더욱 다양해졌다. 각자 출신국가와 성장환경,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서도 다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로 출구 조사에서 라티노 투표자 중 28%가 트럼프에게 투표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트럼프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 보여준 라티노에 대한 인종차별 발언과 강경한 이민 제한 정책 및 반이민 언사를 고려하면 의아한 결과일 수도 있다. 실제로 힐러리 대선 캠프에서 이 부분을 비판하며 라티노 유권자에게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트럼프에게 투표하면, 자신의 뿌리를 잇는 처사라는 비난이 트럼프 지지자에게 가해지기도 했다.

트럼프를 지지한 라티노는 이민 관련 문제보다는 경제정책 공약에 관심을 보였다. 마이애미에 거주하는 도미니카공화국 출신 호세피나 로카바도는 악화된 가게 경제 상황을 언급하면서 트럼프의 경제정책이 살림살이를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힐러리 캠프에서 나온 ‘트럼프 지지는 자신들의 뿌리를 잇는 처사’라는 지속적 세뇌에 모욕감마저 느꼈다고 답했다. 쿠바계 미국인인 데니스 갈베즈는 트럼프가 비합법적 이민자 전체를 강제 송환하겠다는 발언을 실제로 실행할 리 만무하고, 모든 멕시코인을 강간범이나 마약상으로 간주하고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합리적으로 봤을 때 그런 정책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Top issues for Hispanic voters: economy, health care, terrorism, immigration, education

% of Hispanic registered voters saying each is "very important" to their vote in 2016 ...



Note: Based on Hispanic registered voters. Q40.
Source: Survey conducted June 15-26, 2016.

PEW RESEARCH CENTER

Hispanics favor Clinton over Trump on a wide range of issues

Which candidate would do a better job of ... (%)

	All registered voters			Hispanic registered voters		
	Trump	Clinton	Diff	Trump	Clinton	Diff
	%	%		%	%	
Dealing with race relations	26	66	Clinton +40	14	81	Clinton +67
Reflecting your views on abortion	30	53	Clinton +23	18	62	Clinton +44
Making wise decisions about foreign policy	36	54	Clinton +18	24	65	Clinton +41
Dealing with health care	37	54	Clinton +17	18	72	Clinton +54
Selecting Supreme Court justices	40	52	Clinton +12	26	65	Clinton +39
Dealing with immigration	42	51	Clinton +9	22	70	Clinton +48
Managing the federal government	42	49	Clinton +7	26	64	Clinton +38
Making wise decisions about U.S. trade policies	46	48	Clinton +2	26	64	Clinton +38
Dealing with gun policy	45	46	Clinton +1	33	54	Clinton +21
Defending country from future terrorist attacks	48	43	Trump +5	35	52	Clinton +17
Improving economic conditions	48	43	Trump +5	37	55	Clinton +18
Reducing influence of special interest groups	50	30	Trump +20	35	47	Clinton +12

Notes: Based on registered voters. Other/Don't know responses not shown. Q50.
Source: Survey conducted June 15-26, 2016.

PEW RESEARCH CENTER

라티노 유권자에게는 경제가 가장 중요한 사안이다. 각 이슈에 대한 후보 지지율을 보면 대부분의 이슈에서는 클린턴을 지지하지만 경제나 안보 문제는 트럼프 지지율이 높다(출처: <http://www.people-press.org>)

트럼프를 비판하는 언론이 연일 보도하듯이 트럼프가 그렇게 비이성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쿠바계 미국인은 전통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친공화당으로 분류된다. 지난 20년간 비백인계 인구가 증가하고 세대가 다양해지면서 정치적 성향도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바계 미국인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플로리다에서 비쿠바계 미국인의 71%가 힐러리 후보에게 투표한 반면, 쿠바계 미국인의 54%가 트럼프 후보에게 투표했다. 이처럼 정치적 성향은 쉽게 변화하지 않을뿐더러 라티노에게 가장 중대한 관심사가 인종, 이민문제일 것이라는 예측과 단정은 매우 설부른 오판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비록 이번 선거에서 언론이 예측한 바와 달리 라티노는 영향력 있는 유권자 집단이 되지는 못했지만, 향후 중요한 유권자 집단으로 자리매김

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가파른 인구 증가로 인해 라티노 유권자 집단이 차지하는 전체 유권자 내 비율이 점점 커지게 될 것은 명백하다. 2016년에 투표권을 보유한 라티노 유권자는 2,730만 명으로 추정되며 이는 가장 최근의 2012년 대선에 비해 400만 명이 증가한 숫자이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새로 투표권을 획득한 전체 유권자 중 37%가 라티노였다는 사실은 전체 유권자 중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향후 대선에서 중요한 유권자 집단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원인에, 높은 인구 증가율과 더불어 거주 지역의 다양화도 긍정적으로 꼽을 수 있다. 라티노 유권자가 미국 전역에 고르게 분포하는 추세이고, 이전까지는 라티노 인구가 드물던 지역에서도 라티노 인구 증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연방 수준의 정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 정치에서도 라티노를 고려한 정책을 제안하고 입안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라티노의 정치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지표로 네바다 주에서 첫 라티나 상원의원이 당선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쿠바계 미국인이자 공화당 대선 후보로 경선에 참가한 마크 루비오와 테드 크루스를 포함하여 총 3명의 라티노 상원의원이 연방 차원의 정치 영역에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으로서 상원의원에 당선된 사례는 이번 네바다 주의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가 처음이다. 최초의 라티나 주지사인 수사나 마르티네즈와 첫 라티노 여성 연방대법원 판사인 소니아 소토마요르, 최초의 라티노 여성 상원의원인 캐서린 코르테즈 마스토의 등장으로 정치적 영역에서도 라티노 여성이 두각을 드러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라티노 여성이 정치 영역에서 성과를 거두며 공직을 맡아 행정부, 사법부, 의회에서 활동하게 되리라 기대된다.

라티노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라티노 유권자 집단의 정치적 무관심을 줄이고 저조한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 각지에서 각 정당 또는 여러 영리, 비영리 단체 등이 라티노 유권자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라티노의 귀화 절차나 유권자 등록 절차를 돕고 있다. 공화당의 경우, 라티노를 당원으로 영입하고 공직 후보로 공천하는 등 공화당내 라티노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고

자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스페인어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투표소의 증가가 라티노 투표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연방 정부가 영어 외 다른 사용 언어로 된 투표용지와 안내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주 정부에 권고했고, 차기 선거에서 29개 주의 263개의 카운티에서 이를 실행에 옮길 전망이다. 이로써 정치적 의사 표시를 못하던 라티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라티노의 표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라티노를 정확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이번 선거를 통해 드러났듯이, 정당 선택, 경제 비전, 혹은 인권의 문제 등의 문제에서 라티노는 동일한 선호와 관심사를 가진 동질적인 단일한 집단으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이제 라티노는 이질적인 배경과 성향을 지닌 집단으로 변화하고 있다. 라티노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이민 문제뿐 아니라 라티노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여러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라티노가 지지 후보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민 이슈가 최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양상이다. 투표권이 있거나 장차 투표권을 획득할 라티노를 단순한 이민자, 이민자의 후손으로 간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다른 평범한 유권자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일반 시민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Bell, Aaron T. "The Role of the Latino Vote in the 2016 Elections." CLALS Working Paper Series No.13 (2016).
- Cohn, D'vera. "More voters will have access to non-English ballots in the next election cycle." Pew Research Center. 16 Dec. 2016.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6/12/16/more-voters-will-have-access-to-non-english-ballots-in-the-next-election-cycle>.
- Gomez, Alans. "Another election surprise: Many Hispanics backed Trump." *USA Today* 9 Nov. 2016. <http://www.usatoday.com/story/news/politics/elections/2016/2016/11/09/hispanic-v>

ote-election-2016-donald-trump-hillary-clinton/93540772

Krogstad, Jens Manuel. "Key facts about the Latino vote in 2016." Pew Research Center. 14 Oct. 2016.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6/10/14/key-facts-about-the-latino-vote-in-2016>

Krogstad, Jens Manuel, and Antonio Flores. "Unlike other Latinos, about half of Cuban voters in Florida backed Trump." Pew Research Center. 15 Nov. 2016.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6/11/15/unlike-other-latinos-about-half-of-cuban-voters-in-florida-backed-trump>

Krogstad, Jens Manuel, and Mark Hugo Lopez. "Hillary Clinton won Latino vote but fell below 2012 support for Obama." Pew Research Center. 29 Nov. 2016.

<http://www.pewresearch.org/fact-tank/2016/11/29/hillary-clinton-wins-latino-vote-but-falls-below-2012-support-for-obama>

Krogstad, Jens Manuel, Mark Hugo Lopez, Gustavo López, Jeffrey S. Passel and Eileen Patten. "Millennials Make Up Almost Half of Latino Eligible Voters in 2016; Youth, Naturalizations Drive Number of Hispanic Eligible Voters to Record 27.3 Million." Washington, D.C.: Pew Research Center. Jan. 2016.

Pew Research Center. "Democrats Maintain Edge as Party 'More Concerned' for Latinos, but Views Similar to 2012." Oct. 2016.

Pew Research Center. "Low Marks for Major Players in 2016 Election-Including the Winner." Nov. 2016.

Steppler, Renee and Mark Hugo Lopez. "U.S. Latino Population Growth and Dispersion Has Slowed Since Onset of the Great Recession." Pew Research Center. Sep. 2016.

Suro, Robert. "Here's What Happened with the Latino Vote." *The New York Times* 9 November 2016.

<http://www.nytimes.com/interactive/projects/cp/opinion/election-night-2016/heres-what-happened-with-the-latino-vote>

장예림 —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외교학과 재학